

II. 産業 診斷

1. 主要 産業 動向

■ 주요 산업 동향

- 4월 주요 산업 내수는 자동차와 철강의 조강류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석유화학과 철강의 판재류 등에서 부진 양상이 지속. 수출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진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
- 5월 내수는 건설, 조강류에서 호조를 지속했으나 자동차, 석유화학의 부문에서는 위축되었음. 수출은 반도체가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고 철강중 판재류, 자동차, 석유화학 등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주요 산업 6월 전망

- 6월중 내수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강류 부문에서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조선과 자동차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철강중 판재류의 회복이 기대됨. 수출은 엔화 강세, 국제 가격 상승 등 수출 여건 개선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철강중 판재류 등 주요 업종의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보임

■ 산업별 동향

(1) 철강

○ 동향

- 4월중 조강류는 건설 공사 확대에 따라 높은 내수 증가세를 보임. 판재류는 국내 경기 불황 지속으로 내수는 부진을 면치 못한 반면,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은 증가함. 5월에도 조강류는 내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판재류 수출 호조도 지속될 것임

○ 전망

- 6월중 철근 비수기로 조강류 내수가 다소 줄어드는 반면, 부진했던 판재류 내수가 수요 산업의 수출 및 생산 증대로 회복세로 돌아서고 수출 호조는 지속

(2) 석유화학

○ 동향

- 4월중 석유화학 제품은 내수는 다소 부진한 반면, 수출은 미국, 유럽 업체들의 수출 여력 감소로 32% 정도 증가함. 5월에도 아시아 지역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호조로 수출 확대는 지속되는 데 반해 내수용 생산은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전망

- 6월은 주요 공장의 정기 보수로 인한 생산 위축으로 내수 출하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나 수출 호조는 지속될 전망

(3) 반도체

○ 동향

- 4월중 반도체 내수, 수입은 정보 통신 분야의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임. 반면,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데에 기인함. 5월중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나 수입도 크게 증가

○ 전망

- 6월에도 반도체 가격 안정으로 인해 수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 자동차

○ 동향

- 4월중 자동차 내수는 신차 출시, 무이자 할부 판매 등에 힘입어 전월까지 감소세에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섬. 수출도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으로 20.9% 증가함. 5월중 내수는 부진한 반면 수출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임

○ 전망

- 6월중 내수는 자동차 수요 억제 정책 지속으로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나, 수출은 여건 성숙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5) 조선

○ 동향

- 4월중 수주는 작년 말부터 지속된 선박 발주 증가와 일본의 수주 감소로 120.3% 증가했고, 생산도 4월 들어 본격적인 건조 시작에 따라 증가세로 반전됨. 5월중 수주 여력 감소로 감소세로 반전, 생산은 증가세 지속

○ 전망

- 6월중 수주는 채산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로 보합세, 생산은 인도 물량 증가로 증가세 지속 예상

(6) 국내 건설

○ 동향

- 4월중 국내 건설 수주는 민간 부문 수주 회복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6.6% 증가한 6조 2,600억 원에 달함. 5월중 건설 수주는 토목 부문의 호조세로 공공 부문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민간 부문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임

○ 전망

- 6월중 건설 수주는 환경 시설 발주 확대, 분양가 규제 완화로 높은 증가가 예상됨

(1) 철강

■ 동향

철강 내수는 조강류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고, 수출은 냉연 제품을 중심으로 20% 이상 증가함

- 4월중 조강류는 내수 호조, 판재류는 수출 증가세 지속
 - 철근은 관급 물량의 증가로, H형강은 토목·철구조용 수요 증가에 힘입어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 40.6%가 증가하였음
 - 열연강판의 1~4월중 판매는 수출 신장으로 전년비 7.4%가 증가, 후판은 전년과 비슷한 200만 8천 톤을 기록하였음
 - 냉연 제품의 내수는 4월까지 정체된 반면 수출은 원화 절하와 해외 경기 회복으로 20%~40%가 증가했고, 강판은 SOC투자 확대로 내수 호조를 보였으나 가격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비중이 높음

- 5월에도 조강류는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내수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판재류는 수출 확대 기조가 지속됨
 - 조강류는 건설 시장의 안정으로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유지
 - 열연강판, 후판은 생산 정체와 수요 증가로 재고가 최저 수준을 보임
 - 내수 시황의 큰 변화가 없는 냉연 제품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함

■ 6월 전망

조강류 내수는 다소 줄고 판재류는 수출 호조와 함께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6월중 조강류 내수는 다소 줄고, 판재류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은 시황 호조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철근은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형강도 기초 공사 마무리, 건축 허가 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됨
 - 열연강판은 수입으로 공급이 다소 안정되고, 후판은 조선수주 확대, SOC사업 강화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한편, 냉연제품은 수출 지속과 함께 엔고 등에 따른 수요 산업의 수출 및 생산 증대로 판매가 다소 늘어날 것임

<1997년 4월 철강산업 동향>

(단위 : 1,000 톤)

		4월		증감률		1~4월		증감률	
H형강	판매	225		2.3		839		36.7	
철근	판매	1064		-0.7		3837		15.5	
열연강판	내수	659	249	-8.9	1.6	2780	851	5.9	13.0
	수출								
후판	내수	261	39	-3.7	-22	1040	163	-2.9	5.8
	수출								
냉연강판	내수	298.7	199.6	1.0	3.7	1191.2	817.1	-3.0	20.9
	수출								

주: 4월 증감률(%)은 전월 대비이고, 1~4월 누계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박병철)

(2) 석유화학

■ 동향

5월중 유화제품 수출·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임

- 4월중 석유화학 제품 출하는 국내 합성섬유업체들의 설비 능력 증설로 지난해 동월보다 15% 증가한 90만 9,000 톤에 달함
 - 국내 합성섬유업체들의 생산 설비 증설로 생산 능력이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증가
 - 수출은 미국과 유럽 지역 경기 회복으로 인한 선진국 메이커들의 對아시아 수출 여력 감소로 큰 폭으로 증가
- 5월 유화제품 출하는 수출 호조와 관련 제품 내수 호조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수출용 출하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회복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내수용 출하는 생산 감소로 출하 여력이 4월보다는 다소 줄어든 가운데 화섬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제품의 수요 호조가 예상됨

■ 6월 전망

- 6월은 주요 공장의 정기 보수로 생산이 다소 위축될 전망
 - 생산 감소로 출하 여력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내수는 관련 산업의 수요 둔화 등으로 5월보다 약간 줄어들

6월중 내수는 다소 부진하나 수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망

-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입 호조로 수출은 계속 증가
- 가격은 주요 수출국들의 정기보수로 인한 생산 감소로 커다란 상승세를 보일 것임
-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주요 NCC업체들의 정기보수로 인한 생산 감소로 수출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1997년 4월 석유화학 산업 동향>

(단위 : 1,000 톤)

	4월	1-4월 누계		
		증감률		증감률
생산	959	13	3906	16.1
출하	909	15	3748	18.6
수출	306	32	1322	14.9
내수	603	9	2426	20.7

자료 : 석유화학공업협회

주 : 3대 유도품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정오영)

(3) 반도체

■ 동향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차 축소로 수출 감소를 축소

- 4월중 반도체 수출은 13억 8,80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하였음
 -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가격 차이가 큰데 기인하고있음
 - 그러나 1~3월 기간동안 수출이 41.0% 감소한데 비하면 크게 나아진 수치임
 - 수입은 10억 6,50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하였음
 - 1/4분기의 11.8% 증가에 이어 정보통신 분야의 반도체 수요에 의해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5월중 반도체 수출은 14억 9,300만 달러에 달함
 - 5월중 수출은 전년 동월비 8.8% 증가한 것으로서, 성장

-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섬
- 세로 돌아섬
 - 수출 증가 요인은 작년 4월에 가격이 급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줄었기 때문임
 - 작년 4월과 5월의 반도체 가격은 각각 22달러, 18달러였음
 - 반도체 수입은 34.9%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6월 전망

가격안정 지속과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전망

- 6월에도 5월에 이어 수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 아직은 안정세임
- 현재 16M DRAM은 8.5~9.0 달러에 현물 시장 가격이 형성
- 한·일 반도체 업체간 수출 물량 조절 노력이 유지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생산과 내수는 점차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1997년 4월 반도체 산업 동향>

		4월		1~4월 누계	
			증감률		증감률
수출	억 달러	1,388	-8.9	5,010	-34.6
수입	억 달러	1,065	20.8	4,055	24.1
생산	억 원	9,173.3	7.0	29,609.7	38.8
내수	억 원	420.5	14.1	2,283.9	7.9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신광철)

(4) 자동차

■ 동향

- 4월중 국내 자동차 산업은 1/4분기에 비해 호전되면서 회복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생산은 설비 증가, 내수 및 수출 회복세로 20.5% 증가하였음

4월, 5월 국내 자동차 산업은 1/4분기의 침체 여파로부터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임

- 내수는 무이자 할부 판매, 신차 출시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5%가 증가한 15만 2,374 대를 나타냈음
- 수출도 업체들의 내수 부진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수출 전략 추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9%가 증가한 23만 3,000 대를 기록했음
- 수입차의 국내 판매는 수입업체의 공격적인 판촉 활동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876 대를 기록했음

○ 5월중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나 수출은 4월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생산은 내수 둔화, 수출 회복으로 전년 동월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내수는 수요 억제 정책, 경기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수출은 세계 시장 활황,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 수입차 내수 판매는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임

■ 6월 전망

6월중 수출은 3고 현상의 개선에 따른 경쟁력 등으로 회복세를 보임

○ 6월중 내수는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나 수출은 여건 성숙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 생산은 수출 회복으로 전년 동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내수는 수요 증가 요인이 거의 없어 침체 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다
- 6월중 수출은 세계 경제 활황 지속, 3고 현상의 개선, 수출 신용장 내도액 증가 등으로 호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 6월중 수입차 내수 판매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수입 업체들의 직판 체제 구축 등 판촉 강화로 전년 동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1997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단위 : 대)

	4월	1~4월 누계	
		증감률	증감률
생 산	287,204	20.5	902,103 -2.2
내 수	152,374	4.5	458,280 -13.8
수 출	115,037	20.9	348,078 -4.7
수입차 판매	876	3.5	3,193 7.7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각호.

주 : 수출에서 KD는 제외,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윤창호)

(5) 조선

■ 동향

신조 발주
물량의 증가
로 수주는
대폭 증대,
생산도 증가
세로 반전

○ 4월중 수주는 호황, 생산도 증가세로 반전

- 4월 신조선 수주는 전월 대비 120.3% 증가한 119.6만 GT를 기록함
- 지난 11월부터 계속된 선박 발주 물량 증가와 일본의 수주 의지 감퇴가 주 요인임
- 생산은 17.1% 증가한 63.8만 GT로 나타남
- 지난 연말의 조기 건조 물량으로 인한 생산 감소가 일 단락 됨으로써 본격적인 선박 건조가 진행되기 때문임
- 1997년 4월까지 수주는 호황, 생산은 부진을 보임
- 수주는 142.1% 증가한 287만 GT, 생산은 0.3% 증가에 그친 195만 GT임

○ 5월중 수주는 감소세로 반전, 생산은 증가세 지속

- 수주 감소는 지난 4월까지 충분한 건조 물량을 확보함으로 우리 조선 업체들의 수주 여력이 작아진 데 기인함
- 생산은 선박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때문에 선박 인도 시점 도래로 계속 증가됨

■ 6월 전망

○ 6월중 수주는 보합세, 생산은 증가세 지속이 예상

- 우리 조선 업체들도 2년치 건조 물량을 거의 확보함으로써 수주 여력이 부족함

선가를 고려한 선별 수주로는 수주는 보험세, 생산은 증가세가 예상

- 또, 선가 상승을 목표로 채산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엔화가 115엔 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대일 가격 경쟁력 열위는 지속될 전망
- 대개 2/4분기에 선박 건조가 완료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1997년 4월 조선 산업 동향> (단위 : 만 GT)

	4월		1~4월	
		증감률		증감률
수 주	119.6	120.3	287.0	142.1
생 산	63.8	17.1	195.2	0.3

자료: 조선공업협회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정희식)

(6) 국내 건설

■ 동향

5월 건설 수주는 민간 부문 위축으로 전월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

- 4월중 국내 건설 수주는 민간 부문 수주 회복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6.6% 증가한 6조 2,600억 원에 달함
 - 공공 부문은 지난해 동월 대비 9.9%, 민간 부문은 21.1% 각각 증가해 민간 부문 증가율이 두드러짐
 - 4월중 공공 부문 수주액은 정부의 긴축 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 SOC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증가율이 다소 낮을 전망이다
 - 민간 부문은 SOC 민자 유치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표준 건축비 인상으로 주거용 건축 경기가 되살아 날 것으로 보임
 - 1-4월 누계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 부문 정부 발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7.37% 증가한 23조 300억 원에 달함
- 5월중 건설 수주는 토목 부문의 호조세로 공공 부문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민간 부문은 다소 부

진할 것으로 보임

- 공공 부문은 각종 도로 시설과 부산 지하철 3호선 발주, 관공서 및 학교 시설의 건축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임
- 민간 부문에서는 경기 침체 지속에 따라 토목 부문이 부진할 것이나 주택 경기 회복에 따라 주택 부문은 회복세 지속 예상

■ 6월 전망

6월 건설 수주는 환경 시설 발주 확대, 분양가 자율화로 활기 예상

- 6월중 건설 수주는 환경 시설 발주 확대, 분양가 규제 완화로 높은 증가가 예상됨
- 공공 부문에서 철도·교량·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오폐수 처리 시설 등 환경 관련 시설의 발주가 활발할 전망
- 민간 부문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 완화로 지방 대도시의 수주가 활기를 띠 전망

<1997년 4월 국내 건설 수주 동향>

(단위 : 조 원)

수주	4월	1-4월 누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합계	6.26	16.6	23.03	27.37
공공	2.39	10.1	9.67	33.7
민간	3.87	20.9	12.36	13.9

주: 4월은 대한건설협회 추정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김선덕)